

‘타지마’ 호 사건 무죄 판결, 해운계에 파문

필리핀 선원에 의한 일본인 선원 피살사건

일본해운계, 일본 정부의 적절한 대응 촉구

공해상의 파나마선적 유조선 ‘타지마’ 호에서 발생한 일본인 선원 피살사건에 대해 파나마 재판소가 무죄를 선고, 일본해운업계는 물론, 세계해운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타지마’ 호 사건은 지난 2002년 4월 공해상의 탱커 선상에서 필리핀 선원 2명에 의해 일본인 선원이 피살된 선상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파나마 재판소는 5월20일 이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 선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발생 당시 ‘타지마’ 호의 선박관리회사인 교에이탱커와 일본선주협회는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고, 전일본선원조합도 같은 날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파나마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일본해운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에이(共榮)탱커 관계자는 “사건의 목격자(동료 선원)가 있고, 피고 자신이 범행을 시인, 사죄했으며, 더구나 일본의 재판소도 그 혐의를 인정해 파나마에 신변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재판 결과가 나와, 소중한 동료를 잃은 당사로서는 대단히 놀랍고 한편 당혹스럽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일하게 사법관할권이 있던 파나마에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수단이 없어, 재판 정보의 입수와 적절한 대응을 일본 정부에 부탁하고 싶다”는 말로 유감의 뜻을 거듭 표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형법도 개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건이 호지부지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개인, 유족, 폐를 끼친

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선주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의 신용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일본선주협회는 “협회 회원사인 교에이 탱커에 소속된 선원이 살해된 사건이며, 유족의 기분을 생각하면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상세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무죄 평결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일본 당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이해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일본 정부 등의 협력에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본사법당국의 수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신용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컨테이너 용선 지수 18개월만에 하락 본격적인 하락조짐은 아닌 것으로 분석

Howe Robinson이 발표하는 주간 컨테이너 용선지수가 2003년 12월부터의 상승이후 18개월만에 하락 하였다.

6월15일 발표된 용선지수는 전번주 2092.6에서 13.2포인트 하락한 2079.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하락은 1,100TEU 및 1,700TEU급의 중간급 선박의 용선료 하락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향후 몇개월간 용선가능선박이 부족한 상황으로 용선시장의 펀더멘탈이 좋은 편이며, 본격적인 하락추세의 시작이라고는 보고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